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정 현 숙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유계숙 · 임춘희

전춘애 · 천혜정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ung, Hyunsook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Yoo, Gyesook · Lim, Choonhee

Jun, Chunae · Cheon, Hyejung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프로그램의 평가 |
| II.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 V. 논 의 |
| III.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제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a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Based on the system theory, strong family perspective, care & justice perspectives, and empirical research in this field, 4 session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is developed. Target population of this program is persons who remarry and persons who marry with remarried partner. This program is evaluated in terms of the level of remarriage preparation and level of changing attitude after education in terms of self-esteem, cognition & knowledge of parent behavior in the remarried family, object evaluation of their future remarriage life. Future researc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dded.

* 본 연구는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생활의 변화, 그리고 성역할의 변화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과거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현대 가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으며, 가정이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자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오늘날 많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어, 다양한 집단에서 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현재는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기타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단위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와 성당을 중심으로 교리와 연결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오윤자, 1995).

가족생활교육의 시작시기인 1970년대에는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 등의 일반교양교육과 가정관리, 전통적인 결혼관을 주로 다루던 것에서, 1990년 이후에는 가족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대상도 결혼준비, 편모가족, 신혼부부 및 부부, 중년며느리, 젊은 며느리, 노인 및 노부모,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정현숙, 1998).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가족의 대표적인 가족변동의 지표인 높은 이혼율과 이에 따른 재혼의 증가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재혼가족에 대한 가족생활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재혼가족은 21세기의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부상될 가족유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시각은 재혼가족을 문제가 많고 예외적이며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재혼예정자들이 재혼 후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계획되었다.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계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결손가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성보다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건강한 가족을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 소속감과 안전의 욕구, 그리고 자아존중과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가짐으로써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혼가족은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한 준비교육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재혼가족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이나 사별로 재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재혼부부나 개인, 초혼자로서 결혼대상이 재혼자인 예비부부나 개인이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재혼준비교육이라는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적인 재혼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고 가족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있다.

II.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의 양적인 증가나 다양성에 비해 프로그램의 철학이나 관점의 부족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등과 같이 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이론적 기

반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관점과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가족학 이론 및 재혼가족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과 관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가족학 이론

가족학의 여러 이론 중 가족체계이론과 건강가족관점의 여러 내용들이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로 이용되었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하나의 체계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행동은 인과적인 관계보다는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파악된다. 또한 개인의 인성특성보다는 가족체계의 역동적인 과정을 중시하며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전체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가족체계적 관점은 특히 핵가족보다 다소 복잡한 하위체계를 갖는 계부모가족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계부모 가족체계의 중요한 차원은 규칙, 역할 그리고 위계, 경계, 하위체계,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Ganong, Coleman과 Fine(1995)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본 프로그램 구성에 일부 포함시켰다. 이상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재혼부부체계와 계부모자녀체계와 같은 하위체계는 재혼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3단계의 교육에서는 미래의 재혼생활에서 부부 하위체계의 경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 역할을 준비하고,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와 부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앞으로의 재혼생활에 필요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4단계에서는 재혼가정에서의 친부모 및 계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각오 다지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계부모자녀체계의 경계를 강화하고 친부모역할과 계부모역할에 대한 합의된 규칙과 현실적인 기대를 창

출하고자 하였다.

가족체계이론과 함께 본 프로그램은 가족의 실패보다 성공에 그리고 가족의 문제와 병리보다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장점에 초점을 두는 건강가족의 관점을 취한다. 성공적인 재혼가족의 특징으로 Visser(1990)는 상실의 극복과 현실적인 기대, 강하고 단합된 부부와 건설적인 의례의 수립, 그리고 원만한 계(step) 가족 관계의 형성, 분리된 전배우자 가족과의 협동 및 분명한 역할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건강가족의 관점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재혼생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의를 포함하고(1단계), 자신과 예비배우자의 과거 생활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자존심의 고양(2단계), 재혼가족에서 부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하기(3단계),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4단계)등을 교육목표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2. 재혼가족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관점

재혼가족에 대한 발달적 모델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모델이다. Papernow(1993)는 계부모가족의 발달과정을 환상기(fantasy), 몰입기(immersion), 인식기(awareness), 가동기(mobilization), 활동기(action), 접촉기(contact), 해결기(resolution)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계부모가족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재혼가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에서는 계부모가족이 당면한 도전과 딜레마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확보하기, 가족원과 신뢰로운 일대일의 시간 갖기, 친부모를 도와주는 계부모로서 역할하기, 그리고 친부모, 계부모와 전혼자녀 모두의 욕구 파악하기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가족을 재구조화하는 중간단계에서는 공평하고 건설적으로 싸우는 법 배우기를 비롯하여 새로운 가족의 규칙과 전통 세우기, 가족행사 계획하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계부모가족을 공고하게 하는 단계에서는 성숙한 계부모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가족생활주기 후반에 다시 나타나는 충성심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이며, 계부모 가족이 '우리' 라는 의식을 느끼게 하는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McGoldrick과 Carter(1989)는 재혼가족으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전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재혼가족의 발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Thompson(1991)이 주장한 재혼가족에 대한 배려적 관점(care perspective)과 정의적 관점(justice perspective)을 동시에 수용한다. 배려적 관점에서는 상호작용에서의 의미귀속(attribution), 개방(disclosure) 감정이입(empathy) 그리고 협동(cooperation)을 결혼책임감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배려적 관점에 근거한 결혼책임감이론을 가족원들의 구성이 이질적이며 복잡한 재혼가족에 적용시켜 볼 때, 가족원들간의 욕구 대립이나 충성심 갈등이 있기 쉬우며 가족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여가 어렵고 감정이입적인 반응이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자칫 재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여와 자기개방, 다른 가족원에 대한 감정이입과 협동에 기초하여 관계적 도덕성을 발달시키며 나아가 결혼책임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배려적 관점은 재혼가족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배려적 관점을 수용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의 활동에서 예비재혼자로서의 자기개방과 의미귀속, 그리고 감정이입, 협동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정의적 관점은 재혼가족에서의 권력관계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서 선호되는 시각으로(Giles-Sims, 1994), 결혼생활에서 도덕성의 또 다른 지표인 자원의 분배나 분업, 역할수행과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성과 공평성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재혼여성이나 계모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역할기대로 재혼가족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불균형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임춘희, 1996).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재혼부부로서, 친부모 또는 계부모로서 역할수행과 의사결정권이 남녀 평등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전체적인 교육활동과 과정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계부모 가족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관점은 재혼가족의 당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며(1단계), 재혼 이전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고(2단계), 부부가 주체가 되어 앞으로의 재혼생활에서 배우자 및 부모 역할과 관련된 서로의 기대를 파악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에 대한 평등하고 공평한 가족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3단계와 4단계)으로서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3. 재혼가족생활에 대한 경험적 조사

또 다른 한편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도 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1998)의 연구결과에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몇 가지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혼부부들이 지각하는 재혼생활의 주요 영역은 부부관계, 계부모-자녀 관계, 친부모-자녀 관계, 친족관계, 전혼가족과의 관계, 가족 하위체계간 경계의 명료성, 그리고 재혼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다루기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반영되었다. 즉 상대방에게 자기 개방과 친밀감 표현을 통하여 부부간 유대를 강화하고, 다가올 재혼생활 전반 및 계부모 역할이나 재혼가족 형성이후의 자녀출산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이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프로그램의 활동에 반영하였다. 또한 재혼생활에 앞서 새로이 형성되는 재혼가족의 부부 및 계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의 결과들이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교육내용의 토대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프로그램은 가족체계이론 및 건

강가족적 관점과 같은 가족학 이론의 주요전제들, Papernow 및 기타 발달적 모델에서 강조된 내용, 그리고 재혼가족에 대한 배려적 관점과 정의적 관점의 통합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의 주요결과들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III.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제

1.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본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은 재혼 가능성이 있는 개인 대상의 프로그램과 재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대상 프로그램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1999년 8월에 일간지, 지역정보지, 그리고 시청 뉴스에 개인 또는 예비부부 모집 광고를 낸 결과 15명의 개인들만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자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30, 40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7명(남자 3, 여자 4)의 개인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였다. 4회로 구성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1명의 여성은 2회, 1명의 남성은 3회까지만 참석하여 4회까지의 전과정을 완료한 사람은 5명이다. 구체적인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본 연구의 평가 부분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시행장소는 K기관의 회의실이며, 1999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6:30~9:00까지 4번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은 강의와 자료집(worksheet)을 통한 활동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4명의 강사가 각 모임을 담당하였으며, 다른 한 명이 활동을 보조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매회 교육에서 설정한 목표 설명을 시작으로 도입에서 지난 시간의 과제를 점검하고 느낌을 나누는 위명업을 한 뒤(15분-20분), 각 단계와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작업 활동과 강사의 강의(1시간 40분-2시간 10분)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힌 후, 그 날 배운 것을 평가

하고 종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배경이 모두 상이하여 집단의 역동성보다는 각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활동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

2.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혼가족을 형성할 개인이나 예비부부가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가족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계획하였으며, 자신의 과거생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실감을 극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혼생활에서의 주요한 문제들(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는 기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재혼에 따른 생활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1>~<표 4>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강조점이나 내용 및 운영 방법이 조정될 수 있다. 즉 개인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상실감의 극복 및 자존감의 고양이나 선택으로서의 재혼을 강조하는 내용에 보다 비중을 두었으며, 예비부부인 경우는 부부의 유대감 형성이나 새로운 부모 역할 준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예비부부의 경우라도 전혼자녀나 계자녀의 유무에 따라 강사내용을 다소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대상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조정된 사항은 참고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디오와 3단계에서 이용된 '서로를 알기' 게임이 개발되어 각 모임에 토론자료나 도입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비디오는 재혼에 대한 고정관념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인터뷰한 내용과, 이혼자들의 어려움의 극복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자들에 대한 인터뷰, 재혼

〈표 1〉 '첫 번째 모임 : 재혼 바로 보기' 의 강의안

목표	1. 재혼가족의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2. 재혼생활을 위한 자신의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내 용	시 간	준 비 물	
프로그램	도입	1.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2. 자기 소개의 시간*	5분 10분	이름표.
	작업 및 강의	1. 작업 1 : 재혼에 대해 바로 알기 2. 강의 1 : 재혼과 초혼의 차이점 3. 작업 2 : 비디오 시청 <일반인들의 생각>**** 재혼에 대한 고정관념, 재혼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기 재혼 준비시 고려할 영역 점검 4. 휴식 5. 작업 3 : 자신의 재혼준비 상태 점검하기** 재혼준비교육의 필요성 강조하기	20분 10분 40분 10분 30분	간단한 선불, worksheet I -1*** worksheet I -2, OHP I-1 비디오, worksheet I -3~I-5, OHP I-2, I-3 간단한 다과 재혼준비척도, 배경음악, worksheet I -6
	종결	1. 제1단계 요약하기. 2. 소감과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발표.	10분	worksheet I -7

* 커플인 경우, 서로 상대방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어떠한 점이 서로에게 매력으로 이끌렸는지, 그리고 언제 결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를 함으로써 참석자들간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 커플경우, 자신의 점수를 파트너와 비교해보고 재혼준비가 더 필요한 영역에 대해 파트너와 의견교환.

*** worksheet의 구체적 내용은 정현숙 외(1999).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 (교사용). 서울: 동인출판 참조.

**** 제 1단계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일반인들의 생각>은 거리에 나가 일반인들에게 재혼하면 떠오르는 것, 재혼자를 볼 때 느끼는 점, 가까운 사람의 재혼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인터뷰하여 재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2〉 '두 번째 모임: 새로운 관계를 위한 홀로 시기' 강의안

목표	1.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는다. 2. 자신의 과거생활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한다.			
	내 용	시 간	준 비 물	
프로그램	도입	1. 두 번째 모임에 참여한 것을 격려 2. 지난 시간 내용 확인 및 오늘의 내용 소개	5분 5분	이름표, OHP
	작업 및 강의	1. 작업1 : 자신의 일대기 돌아보기 2. 작업2 : 상처 극복하기* 3. 비디오 클립 <이혼자 인터뷰>*** 감상 및 소감 발표 4. 휴식 5. 강의1 : 감정적 상처 극복과 자존감 6. 강의2 : 상처 극복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7. 작업3 : 나에게 상장주기**	30분 30분 10분 10분 10분 10분 20분	worksheet II-1, 2, 필기도구, 배경음악 worksheet II-3(개인용) video, video player 음료 및 스낵 worksheet II-4, OHP II-1 worksheet II-6
	종결	1. 요약 및 정리 2. 다음 시간 내용 소개	10분 5분	worksheet II-7

* 커플인 경우 예민한 내용으로 인해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 작업을 생략하고 '자신의 일대기 돌아보기'를 서로의 인생을 격려해주는 시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커플인 경우 '서로에게 상장주기'로 수정하여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 2단계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이혼자 인터뷰>는 이혼을 한 남녀에게 이혼 후 가장 힘들었던 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과거 결혼생활에서 후회되는 점이나 배운 점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세 번째 모임 :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의 강의안

목표	1.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감정과 욕구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2. 성공적인 재혼가족생활을 위하여 부부간의 친밀성과 유대감 및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프로 그램	내 용		시 간	준 비 물
	도입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확인 및 오늘의 내용 소개	5분	이름표
	작업 및 강의	1. 작업 1 : 비디오 시청(재혼 성공 비결 배우기)*** 2. 작업 2 : 재혼에 대한 자신의 기대 확인하기* (또는 '서로를 알기' 게임)	30분 30분	비디오, worksheet III-1, 필기도구, OHP III-1 worksheet III-2, 필기도구
	종결	1. 제 3단계 요약하기 2.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나의 다짐 작성하기**	5분 30분	worksheet III-4, 필기도구 배경음악, worksheet III-5, 편지봉투, 필기도구, 풀

- * 커플의 경우 '서로를 알기' 게임을 실시하고, 개인대상 교육 시에는 참가자들간의 레포 형성을 위해 강사의 재량에 따라 참가자들을 짝지워 '서로를 알기' 게임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 ** 개인의 경우 작성한 내용을 제출하여 교육종료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우송하고, 커플인 경우에는 각자가 작성한 내용을 당사자와 파트너에게 교차로 우송해준다.
- *** 제 3단계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재혼 성공 비결 배우기>는 재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재혼을 결심한 동기, 재혼해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나 기대에 맞지 않는 점, 재혼을 원만히 해주는 요소, 그리고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4〉 네 번째 모임 :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 점검하기

목표	1.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와 계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과 특징을 이해한다. 2.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과 계부모역할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대한다. 3.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4. 친부모역할과 계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각오를 다진다.			
프로 그램	내 용		시 간	준 비 물
	도입	1. 교육참여를 격려하고 교육내용 소개 2. 현재 자신의 자녀상황과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재혼형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5분 15분	worksheet IV-1와 펜
	작업 및 강의	1. 작업1 : 비디오** 시청과 소감나누기 2. 작업2 : 재혼 후 자녀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기대 확인하기* 3. 휴식 4. 강의 1 : 재혼가족의 성공과 새부모역할 전혼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의 중요성 재혼가족에서의 자녀출산 5. 작업3 :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하기 장점 찾아보기 6. 작업4 :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을 위한 각오다지기	40분 20분 5분 15분 10분 20분	비디오, worksheet IV-1, 펜 worksheet IV-2, 펜, 배경음악 음료 OHP자료, 칠판 worksheet IV-3, 배경음악
	종결	1. 사후검사지와 전체 프로그램 평가지 작성 2. 소감발표와 다함께 노래 부르기 3. 공지사항 안내와 유인물배부	30분	사후검사지와 전체 프로그램 평가지, 필기도구

- * 개인인 경우 재혼가족에서 예상되는 자녀문제에 대한 기대를 점검하고, 커플인 경우 예비배우자의 자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 ** 제 4단계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재혼가족 에피소드>는 다양한 재혼가족 유형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둘러싸고 전형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상황을 묘사하는 총 여섯 가지 에피소드가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었음.

자들의 재혼과정과 어려움,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재혼자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었으며, 재혼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모-자녀관계의 에피소드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강의안은 <표 1>~<표 4>와 같다.

IV. 프로그램의 평가

1. 평가 방법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7명의 개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모임 시작 전에 사전검사, 4주 후 프로그램 종료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평가 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으며, 사전검사는 자존감 척도와 재혼준비도 척도, 그리고 사후검사는 재혼준비도 척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평가지로 구성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총 1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2$ 이다. 재혼준비도 척도는 개인용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 목표인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혼생활에 대한 객관화 및 자존감 고양,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 준비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하위 영역은 각각 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총 15문항을 합제한 재혼준비도 총점이 개인의 전반적인 재혼준비도를 나타내며, 재혼준비도 총점이 높을수록 미래의 재혼생활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재혼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alpha=.56$ 으로 나타났다.

2.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은 총 7명으로 여성 4명, 남성 3명이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5>와 같다.

본 프로그램 참가자는 <표 5>와 같이 평균 연령

<표 5>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N=7)

인구학적 특징		명 (%)
성별	남	3 (42.9)
	여	4 (57.1)
연령(세)		x=40.29 (sd=4.03, 범위 33~45)
교육 수준	중졸	1 (14.3)
	고졸	3 (42.9)
	대졸	3 (42.9)
직업	관리직	1 (14.3)
	기술직	1 (14.3)
	자영업	2 (28.6)
	전문직	1 (14.3)
	무직	2 (28.6)
전혼해체 사유	이혼	4 (57.1)
	사별	3 (42.9)
전혼 지속 기간(년)		x=9.50 (sd=6.80, 범위 1.5~18.0)
자녀수(명)		x=1.43 (sd=0.79, 범위 1~3)

이 만 40.29세이며, 30대가 2명, 40대가 5명이다. 교육 수준은 고졸과 대졸이 각각 3명이며, 중졸이 1명이다. 참가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은 자영업 1명, 전문직 1명, 무직이 2명이며, 남성은 관리직, 기술직, 자영업이 각각 1명씩이다. 남성 3명 모두의 전혼해체 사유가 이혼인 반면, 여성은 사별 3명, 이혼 1명으로 사별자가 많다. 전혼 지속 기간은 평균 9.5년이며, 사별자는 평균 16년, 이혼자는 평균 4.6년으로 이혼자의 전혼 지속 기간이 짧다. 참가자들이 전혼생활에서 낳은 자녀의 수는 한 자녀인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자녀와 세 자녀를 둔 경우가 각각 1명씩이다. 평균 자녀 수는 1.43명이며, 이혼자 4명은 모두 한 자녀를 두었다. 한편 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참가자들의 자존감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한 개인을 가려내고자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측정된 결과, 평균 43.43(표준편차 4.58, 범위 38~49)으로 보통 수준의 자존감을 나타냈다.

3.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재혼준비도 및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

가자 개개인의 미래의 재혼생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개인용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 목표인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1단계), 전혼생활에 대한 객관화 및 자존감 고양(2단계),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 준비(4단계), 그리고 전반적인 재혼준비도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Wilcoxon의 종속표본 기호등위검증(Matched-Pairs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재혼준비도 총점에서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Z=-2.02, p=.04$)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재혼준비도는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혼준비도의 3개 하위영역 검사에서도 교육 실시 후 평균값이 증가된 경향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었는데, 이는 재혼준비도가 환원적이기보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수가 매우 적다는 점도 재혼준비도의 3개 하위영역 점수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교육 종료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참가자들은 재혼준비교

육 프로그램이 앞으로의 재혼가족생활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 참가 전에 비하여 다소 적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재혼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참가자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재혼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현실적으로 바뀔에 따라 앞으로의 결혼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로 풀이된다.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 단계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단계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 진행자와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총괄적 평가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주에 걸친 교육기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일부 참가자들이 교육기간의 연장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추후 교육에서는 교육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논 의

본 연구는 이혼이나 사별로 재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재혼부부나 개인, 초혼자로서 결혼대상이 재혼자인 예비부부나 개인을 대상으로 재혼에 대한 현

<표 6> 재혼준비도 사전, 사후검사 점수 및 Wilcoxon 분석결과

(N=7)

재 혼 준 비 도	사전검사 점수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점수 평균(표준편차)	Z값 ^a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1단계)	17.86(2.80)	19.60(2.07)	-1.46
전혼생활에 대한 객관화 및 자존감 고양(2단계)	18.71(2.36)	22.00(2.45)	-1.62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 준비(4단계)	21.14(2.55)	21.60(2.07)	0.00
재혼준비도(총점)	57.71(5.02)	63.20(4.76)	-2.02*

a. 7명의 교육 참가자 중 재혼준비도 사전, 사후질문지에 모두 응답한 5명으로 검증한 값 * $p<.05$

〈표 7〉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와 만족

(N=5)

평 가 항 목		평균(표준편차)
교육을 통한 자신감의 증진		2.80(1.10)
미래의 재혼가족생활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정도		4.60(0.55)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1단계 '재혼 바로 보기'에 대한 만족도	4.40(0.55)
	2단계 '새로운 관계를 위한 홀로서기'에 대한 만족도	4.00(0.71)
	3단계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에 대한 만족도	4.67(0.58)
	4단계 '재혼가족에서의 부모 역할 준비하기'에 대한 만족도	4.40(0.89)
교육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4.40(0.55)
	교육의 총 기간에 대한 만족도	3.20(1.30)
	교육 내용의 4단계 구성에 대한 만족도	4.00(1.23)
	각 단계별 교육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	4.00(0.71)
	교육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	4.60(0.55)
	교육의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4.60(0.55)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4.40(0.55)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 평점(100점 만점)		85 (9.35)

실적인 기대와 재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재혼생활의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모임인 '재혼 바로 보기(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두 번째 모임인 '새로운 관계를 위한 홀로서기(전혼생활에 대한 객관화 및 자존감 고양)', 세 번째 모임인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역할 준비하기', 그리고 네 번째 모임인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 점검하기'의 총 4회 교육으로 구성된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에 참가한 개인 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종료 후에 각각 재혼 준비도 검사를 실시하고, 종료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은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이 미래의 재혼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미래의 재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 참가 전에 비하여 다소 적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남편과 사별한 여성 참가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혼이 막연한 기대와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혼 후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여성 참가자는 "재혼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접하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으며, 재혼을 결코 성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을 받고 나니 재혼을 잘 하고 재혼가정을 잘 꾸려간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응답은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참가자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재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바뀐에 따라 앞으로의 재혼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로 재혼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혼이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할 수 있다는 재혼의 긍정적인 측면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과 각 단계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논의와 제언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15명의 개인이 전화로 교육참가를 신청하였다. 참가 신청자 수가 적은 것은 아마도 재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하고 재혼준비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본 프로그램의 홍보는 요즘 난무하는 결혼정보회사의 영리위주의 이벤트성 홍보와는 차별화 될 필요가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15명의 신청자 중 실제로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7명이었다. 교육에 불참한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교육이 진행되는 밤 시간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는 본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탁아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4주에 걸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회성의 대단위 강좌도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실시 중 이혼자와 사별자의 반응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참가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혼해체 사유에 따라 이혼자와 사별자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참가자의 연령별 수준 특히 가족생활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교육 대상을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 사전검사에서 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한 개인을 선별(screening)하고자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검사한 결과, 보통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로서 본 교육 대상으로 적합하였다. 이는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할 때 사전조사를 통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선별하는 작업이 함께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이 비교적 소집단 규모로 운영되는 성인대상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자가 참가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혼과 사별로 인해 큰 상실감을 지니고 있는 참가자와 교육자가 처음 만나게 되는 첫번째 모임인 '재혼 바로 보기'에서 참가자와 교육자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 강조되며, 교육자 자신이 재혼과 이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참가자와 교육자간의 라포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자는 이전에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극 권장되며, 참가자의 의견이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수용해주며, 그들의 개인적 비밀을 보장하고,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두번째 모임인 '새로운 관계를 위한 홀로서기'는 재혼을 계획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상실감 극복과 자존감 향상을 돕고자 실시하였다. 사실 재혼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과거 생활에 대한 감정적 정리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홀로서기가 됐을 때 비로소 재혼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두번째 모임에서는 감정적으로 동요된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감정을 노출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어 다음 모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감정적이 되어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참가자들의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감정이 고조되는 상태에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타임아웃(time out)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준비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본 교육의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재혼을 할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의 참가율이 저조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개인 대상의 교육 실시 전과 종료 후에 재혼 준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척도에서는 세번째 모임인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혼을 할 계획이 있는 예비 부부를 모집하여 부부 대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4단계가 모두 포함된 재혼준

비도 척도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자 예비 부부의 미래의 재혼생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서 사용한 '서로를 알기' 게임은 커플의 친밀감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개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결과 참가자들이 서로 친숙해지고 자기 노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혼가족에서 계부모-계자녀관계는 전반적인 재혼가족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로 간주된다(Pasle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 실제로 네번째 모임인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역할 점검하기'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각별하고 개인적 상황에 따른 질문이 많이 나왔으므로, 이 단계를 담당하는 교육자는 재혼가족에서의 친부모자녀관계와 계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재혼후의 자녀출산 문제나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풍부한 사례와 정보, 지식을 갖추어 다양한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해줄 수 있는 준비와 노련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네번째 모임에서는 강의부분이 다소 길어 교육의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자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설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참가자의 대답을 반영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연장된다면, 네번째 모임을 2회로 나누어(예를 들면, 친부모자녀관계/ 계부모자녀관계) 교육을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일곱째, 참가자들은 비디오 시청 이외에 재혼한 부부들을 초청하여 그들로부터 직접적인 경험을 듣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재혼자를 섭외하여 교육 중에 참가자와 재혼자와의 만남 시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재혼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원하므로 참가자들의 요구 여하에 따라 교육자 재량으로 교사용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

용(가령 관련 도서나 영화)이나 기타(신문기사나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 등) 유용한 자료를 배부하여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자체적인 후속모임을 원한다면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교육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의 연락처 명단을 나누어 갖도록 할 수도 있다.

본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이혼이나 사별로 재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재혼부부나 개인, 초혼자로서 결혼대상이 재혼자인 예비 부부나 개인들에게 성공적이고 기능적인 재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적은 참가자를 통해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포함한 추후 수정 작업이 요구되며, 사전사후 분석에 이용한 척도의 신뢰성이 낮은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과 이혼한 사람의 대부분이 재혼을 고려하거나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혼준비 및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을 계기로 재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고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함과 더불어 가족생활교육의 대중적 관심을 촉진시키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오윤자(1995). 가족생활교육. 유영주 외(1995). 결혼과 가족(pp. 355-39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2) 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1998).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5주년 학술대회.
- 3) 임춘희(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정현숙(1998).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55-68.

- 5)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2000). 재혼가족의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19.
- 6)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1999).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교사용). 서울: 동인.
- 7) Ganong, L. H., Coleman, M. & Fine, M.(1995). Remarriage and stepfamilies. In R. D. Day, K. Gilbert, B H. Settles, & W. R. Burr(Eds), *Research and theory in family science(pp. 287-303)*.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8) Giles-Sims, J.(1994). Comparison of implications of the justice and care perspectives for theories of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Stepparenting: Issu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35-50)*. Greenwood press.
- 9) McGoldrick, M., & Carter, A.(1989). Forming a remarried family. In E. A. Car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pp. 399-429)*. NY: Gardner.
- 10) Mills, D.(1984). A model for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 365-372.
- 11) Papernow, P. (1993). *Becoming a stepfamily: Patterns of development in remarriage families*. New York: Gardner.
- 12) Pasley, K., Dollahite, D., & Ihinger-Tallman, M.(1993). Bridging the gap: Clinical application of research findings on the spouse and stepparent role in remarriage. *Family Relations*, 42, 315-322.
- 13) Thompson, S.(1991). Family work: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181-196.
- 14) Visher, E.B., & Visher, J. S.(1990). *Stepfamilies: A guide to working with stepparents and stepchildren*. NY: Brunner/Mazel.